21세기와 문화 그리고 삶 44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마 정 미
문화평론가
neospero@naver.com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의 문턱은 늘 마음을 신산하게 만든다. 물론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 반갑고 설레는 시기도 있다. 대기를 감도는 바람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감지되는 이른 봄이나, 한여름의 지겨운 습기와 폭염이 수그러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 마음이 들뜨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이러한 계절의 순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열정과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기도 한다. 봄가을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졸업, 취업, 결혼식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잊고 있던 한기에 새삼스레 움츠러들게 된다.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체감온도가 더욱 떨어지는 탓이다. 더구나 한해를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이기에 마음이 더욱 허전해진다. 올 한해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한 해 동안 거둔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볼 때 후회 없는 사람들도 있겠고,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지낸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은 회한에 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와 일상

그래서 겨울이 오면 도시는 일부러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절망을 감춘다. 미국 맨해튼에 있는 록펠러 빌딩 앞의 대형트리가 밝혀지면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전야의 무드로 전환한다. 이 휘황한 조명과 장식들은 대개 겨울이 다가도록 도시를 밝힌다. 그렇게 연말연시의 떠들썩하고 부산한 분위기는 도시인들의 회한과 절망, 그리고 사색의 시간마저 덮어버린다. 사실 도시에 살면 회한에 젖을 시간도 주어지

지 않는다.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야하는 각종 업무와, 해결해야만 하는 금전적인 고민들, 청산해야 하는 일들과 형식적인 마무리를 위해 펼쳐지는 망년회, 송년회를 치르다보면 어느새 새해를 맞게 된다.

아침 자명종 소리에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일으켜 출근길에 나서려면 아침도 거르기 일쑤. 하루 종일 직장업무에 시달리고 저녁회식이나 거래처 접대, 약속 모임 등에 참석하다 보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은 커녕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다. 매일 매일 다람쥐 쳇바퀴 같은 고단한 하루를 마칠 때면 문득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간혹 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 누구 때문인지 모를 하루하루가 허무하고 자신에게 과연 꿈이 있었는지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조차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늙어가고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면 인생이 너무 슬퍼진다. 사람들은 삶에 대한 권태를 느낄 때마다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나는 막연한 일탈을 꿈꾸곤 한다. 그렇지만 도시인들의 일탈은 결국 일터로 돌아와 살아남기 위한,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된다. 그것도 자신의 돈을 들여 지치도록 관광지의 시간과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일탈을 소진하고 일상에 돌아와서 삶은 지속되는 것이다.

네팔에 다녀온 친구 하나는 잘나가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유를 물으니 네팔을 다녀와서 자신은 변했는데, 회사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꼼꼼하고 씩씩한 한 선배는 어느 날 온가족이 영국으로 떠나버렸다. 문재가 뛰어나고 성품도 빼어난 옛 직장 동료는 어느 날 연고도 전혀 없는 괴산으로 귀농을 했다. 물론 그들의 결단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다. 오랜 시간의 고민과 결단의 계기가 있었으리라.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도시에 남아있는 나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구절 처럼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을 느끼게 된다. 아니 떠나지 못한 자의 슬픔인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떠나지 도 못하고 자신의 불안정한 입지가 괴롭지만 전업도 쉽지 않다. 직장을 그만둘 수도, 가정을 팽개칠 수도 없지 않은가. 전세자금을 털어 온가족이 세계 일주를 간다거나 이민, 혹은 귀농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늘 부족하기 마련이지만 월급이 또박또박 통장으로 들어오면 서푼어치 행복으로 연명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뭉텅뭉텅 지불하며 우리는 또 일상을 견딘다.

일상성과 현대성

일상성이란 단순한 일상적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현대산업사회의 도시적 특징이다. 일찍이 현대인을 호모 코티디아

누스(Homo Quotidianus)로 명명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vre)는 현대성(modernite)과 일상성(quotidiennete)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작동한다고 묘파했다.

"현대성은 일상성을 후광으로 장식하고 또 그것을 뒤엎는다. 현대성은 일상성을 비추어 주고 또 그것을 슬쩍 감추기도 한다. 이것들은 오늘날 시대정신의 두 측면이다. 무의미의 집합체인 일상에 의미의 집합체인 현대성이 답을 한다. 이 의미들에 의해 이 사회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면 또 이 의미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이다."

사실 계급이나 사회구조, 사회변동과 같은 추상적 개념에 비하면 일상생활이라는 용어는 얼마나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가, 그러나 이 자명성 속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일상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매일 되풀이 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은 일상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일상이 갖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사람들은 일상의 극복을 원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일상과 이상은 대립되는 존재이기 보다는 서로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존재이다. 예컨대 일상은 욕망의 장소이다. 그러나 일상이 곧 욕망은 아니다. 일상은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촉매이다. 왜냐하면 일상은 비욕망의 장소이며 거기서는 충만감 속에서 욕망이 죽고 그 재에서부터 욕망이 다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욕망이 다시 생기는 순간 일상성은 사라지나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일상성이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부각된 일상성이란 농경사회에서 일기와 절기에 따른 반복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태양과 절기에 따른 반복은 자연스러운 생멸의 주기이지만, 일상성이란 도시화, 자본주의가 도입된 사회가 갖는 분열적인 증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상은 그 하찮음 속에서 반복들로 이루어진다. 일상성이 가진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는 일상의 비참함이다. 즉 지루한 임무들, 모욕적인 일들, 노동계급의 삶, 일상성에 짓눌리는 여성들의 삶 등이 그것이다. 곧 절제, 박탈, 억압, 욕망 및 비천한 인생의 영역이다. 두 번째 그림은 일상의 위대성, 즉 지속성이다. 삶은 땅위에 뿌리를 박고 영원히 지속된다.

바틀비여, 인간이여

일상이 고단할 때 가끔 떠오르는 문구가 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I would prefer not to)' 라는 말이다. 《백경》으로 잘 알려진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의 단편소설 《필경사, 바틀비(Bartleby, the scrivener)》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다. 월스트리트가 변호사 사무실의 서기로 취직한

바틀비는 맹목적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 산보도 하지 않고 신문도 읽지 않고 점심은 생강과자로 때우며 무엇에 홀린 듯 밤낮으로 법률 서류를 베끼는 일에 몰두하던 그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상사의 명령을 거부한다. 하고 싶지 않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얼핏 이 단편은 노동자인 바틀비와 자본가인 화자(법률사무소 대표)를 대칭으로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소외를 다룬듯하지만 그리 단순하고 명확하지는 않다. 오히려 취향의 문제, 인간 본연의 고독 등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바틀비는 사회 일반의 규칙을 모두 거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한다. 저항한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저항이 무슨 의미인지 화자는 궁금해 한다.

웃음을 잃고, 일할 의욕을 잃고, 식욕을 잃고, 마침내 삶 자체를 거부해버린 바틀비. 결국 모든 인간,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하고 생존을 위한 식사마저 거부하는 바틀비는 부랑자 수용소에서 잠든 듯 숨을 거둔다. 그가 절멸한 후 알려진 사실은 그가 워싱턴의 사문서국(Dead Letter Office)에서 일했었다는 것이다. 즉 수취인 불명의 편지를 전담 처리하는 부서다. 멜빌은 마지막을 이렇게 맺는다.

죽은 편지(수취인불명 우편물). 그것은 죽음이라는 말과 맞닿아 있지 않은가? 한인간의 타고난 천성과 불행이 죽음의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쉽다면, 갈 곳 없는 편지의 쉴 새 없는 분류와 그것을 소각로에 던져 넣는 일이란 다름 어떤 직업보다도 더욱 그 절망을 깊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때때로 그 창백한 얼굴은 접혀진 종이 속에서 반지를 한 개 끄집어낸다. 그 반지를 끼워야 할 손가락은 어쩌면 무덤 속에서 썩고 있을 것이다. 인정 많은 사람이 급히 보내는 지폐 한 장, 그 동정을 받을 사람은 이미 먹지도 굶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죽은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조차도, 원래는 생명의 사자로 보내졌던 것이지만, 결국 이 편지들은 죽음을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아아, 바틀비여, 인간이라는 존재여!

문득 영화 〈타인의 삶〉이 떠오른다. 동독의 냉혹한 비밀경찰이었지만 자신이 감시하던 극작가를 지켜주다 모든 것을 잃고 우편배달부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마지막 부분이 오버랩 되는 탓이다. 쓸쓸한 거리, 집집마다 우편물을 넣고 쓸쓸히 돌아가는 그는 어느 날 서점에서 본 책 한권으로 충만해진다. 그것은 극작가가 자신을 위해 쓴 책이므로…….

내년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보고 싶다.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내가 개척해야 할 새로운 일을 두려움 없이 해보고 싶다. 그것이 일상에서의 일탈로 그칠 수도 있고, 끝내 입 밖에 내뱉지 못하는 혼잣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 인생의 대책 없는 분기점이 될지도 모르지 않는가.